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 황진호 기자 | ⓒ 승인 2025.12.07 17:26

지사장·공사감독·현장관리인 합동 점검으로 근로자 안전수칙 이행 여부 집중 확인
낙상·장비 오작동 등 겨울철 사고 예방 위해 기본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당부



▲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직원들이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시설물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가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부터 관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사장과 공사감독, 현장관리인이 점검에 직접 참여해 근로자 안전과 현장 대비수준을 면밀히 확인했다.

이번 점검은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사장, 공사감독, 현장관리인이 함께 참여해 근로자 안전수칙 이행 여부와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꼼꼼히 확인했다.

특히 동절기에는 낙상, 장비 오작동, 작업환경 악화 등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기본 안전보호구 착용과 현장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기본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김종학 지사장은 “안전관리의 기본은 안전보호구 착용과 같은 기본수칙 준수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지침을 더욱 철저히 이행해 사고 없는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